

김세중 연구위원, 김혜란 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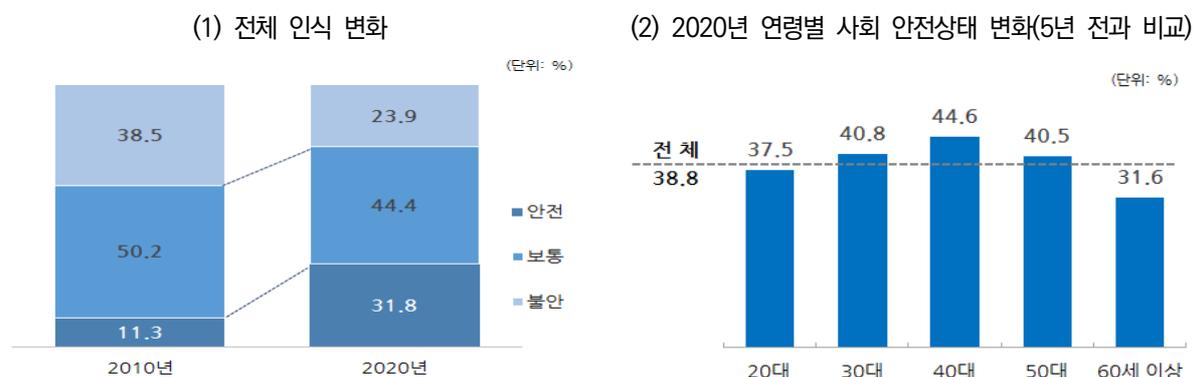
요약

우리 사회가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, 이는 개인의 물리적 위험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. 그러나 사회안전 항목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우울증,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인지능력 장애 등 개인의 정신적 위험은 확대되고 있음. 보험산업은 전통적인 보장 영역인 물리적 위험의 축소와 함께 정신적 위험의 확대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보장 니즈 변화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

○ 우리 사회가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, 이는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사회적 투자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

-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사회 전반적인 위험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31.8%로 나타났으며, 이는 2010년 11.3%에 비해 3배 가량 증가한 것임¹⁾
 -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38.5%에서 23.9%로 감소함
- 2020년 사회조사 결과 중 5년 전에 비해 사회안전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에서 30%를 넘어서고 있으며, 40대에서 가장 높은 44.6%가 사회안전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함
- 행정안전부, 식품안전처,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은 매년 국민안전과 관련한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으며, 이에 따른 지속적인 사회적 투자가 안전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

〈그림 1〉 전반적인 사회 안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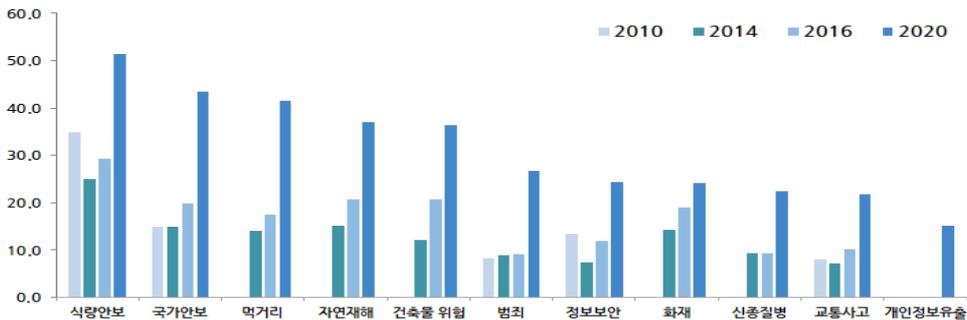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

1) 통계청(2020. 11. 18), 「2020년 사회조사 결과(가족·교육과 훈련·건강·범죄와 안전·생활환경)」

- 사회안전 항목 중 화재,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,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위험인 정보보안, 신종질병, 개인정보유출 등의 안전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
 - 주로 사적 보험상품을 통해 보장받고 있는 화재 및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, 이들 위험에 대한 보장니즈는 지속적인 것으로 생각됨
 - 한편 IT기술 확산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도 상당한 것으로 해석되며, 신종질병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2〉 항목별 안전 인식



주: 개인정보유출 항목은 2020년 추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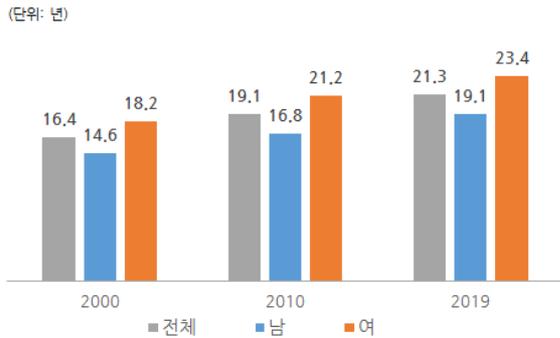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- 사회안전 평가 항목들은 주로 물리적인 위험이며, 사회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안전인식 개선은 개인의 물리적 위험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함
 - 사회안전을 평가하는 요인은 크게 안보, 재해, 범죄, 화재 및 교통사고 등이며 이들 항목은 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물리적 위험임
 - 각 항목에 대한 위험인식 정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, 이는 개인의 물리적 위험 감소를 의미함
- 한편 사회안전 항목으로 평가되지 못하는 우울증,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인지능력 장애 등 개인의 정신적 위험은 확대되고 있음
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장애를 포함하는 기분장애 총 진료인원이 2016년 77만 8천 명에서 2020년 101만 7천 명으로 40%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OECD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 미국, 영국, 일본,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우울증 유병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명 코로나 블루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며, 2020년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율은 36.8%로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²⁾

2) OECD(2021. 5), "Tackling the mental health impact of the COVID-19 crisis: An integrated, whole-of-society response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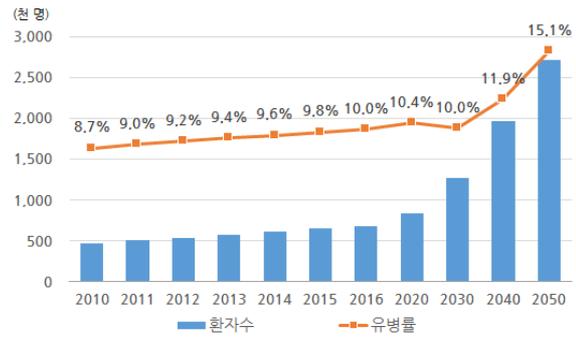
- 2020년 기준 65세 노인의 기대여명은 21.3년으로 85세 이상 생존하면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위험 증가하고 있으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13년 10.0%, 2050년 15.1%로 증가할 전망이다

〈그림 3〉 65세 노인의 기대여명



자료: 통계청

〈그림 4〉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 및 유병률 추이



자료: 국민건강보험, 『통계연보』

○ 사회안전 투자 확대, 4차 산업 발달 등으로 개인의 물리적 위험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며, 경기부진, 수명증가 등은 정신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, 개인 위험의 속성 변화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

-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 향상 노력은 지속될 것이며, AI, IoT 등 새로운 기술의 적용, IT기술 및 의학기술의 발달 등은 물리적 위험의 축소를 가속화 할 수 있음
- 그러나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 정체, 경쟁심화에 따른 갈등 확대, 기대수명의 지속적인 증가 등은 향후에도 정신적 위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, 코로나19와 같은 전 지구적인 전염병의 재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
- 물리적 위험의 감소와 함께 정신적 위험에 대한 노출 증가는 개인의 위험 비중이 물리적 위험에서 정신적 위험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며, 이러한 개인의 위험 속성 변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

○ 보험산업은 전통적인 보장 영역인 물리적 위험의 축소와 함께 정신적 위험의 확대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의 보장 니즈 변화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

- 보험산업이 보장을 제공하는 개인의 위험 중 상해보험, 화재보험, 주택보험 등 물리적 위험에 관련된 보험상품들은 위험의 축소에 의해 보장 니즈가 감소할 수 있음
- 개인의 정신적 위험은 보험산업이 보장을 제공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현재에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³⁾ 향후 보장 니즈 확대가 예상되므로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임
- 정신적 위험의 보장은 사고 후 보상보다는 예방과 관리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, 수치로 평가하기 어려운 삶의 질과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소비자 접점을 활용하고 신기술 활용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음

3) 이정택(2018), 「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」, 『연구보고서』, 보험연구원